

공무국외여행보고서

제29차 유엔기후변화 당사국총회 참석 및 한국홍보관 제주 세션 운영

Official Overseas Travel Report
Participation in the 29th United Nations Climate
Change Conference of the Parties (COP29)
and Operation of the Jeju Session at the Korea Pavilion



공무국외여행보고서

제29차 유엔기후변화 당사국총회 참석 및
한국홍보관 제주 세션 운영

2024. 12



목차

I. 출장개요	3
1. 목적	3
2. 기간	3
3. 대상국가	3
4. 여행자 인적 사항	4
5. 주요 일정	5
6. 유엔기후변화협약(UNFCCC COP)	5
7. 제29차 유엔기후변화 당사국총회 (COP29)	6
II. 출장내용	7
1. 국제기구 세션 참관 및 협력 강화	7
2. 한국홍보관 제주세션 및 기술전시	7
3. 제주탄소중립지원센터 홍보	9
4. 각 국가 홍보관 탐방	10
III. 시사점 및 특이사항	12
IV. 첨부자료	13
1. 국제탄소시장 출범의 시사점	13

출장개요

1. 목적

- 제29차 유엔기후변화 당사국총회(COP29)에서 최신의 기후변화 대응 관련 정책 및 기술을 파악하고, 기후 금융과 손실·피해 보상 기금 관련 국제 동향 수집
- 제주의 2035 탄소중립 선언과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계획을 홍보함으로써 제주의 선도적인 계획을 국제사회에 알리고 모범사례로서 제주의 위상 제고
- 다른 지역 및 도시 차원의 탄소중립지원센터와 교류를 통해 제주특별자치도의 탄소중립 경로와 달성 방식을 공유하고, 타 지역의 성공적인 사례 벤치마킹

2. 기간

- 2024.11.11. ~ 2024.11.18. (8 일간)

3. 대상 국가

- 제29차 유엔기후변화 당사국총회(COP29)가 열리는 아제르바이잔은 중앙아시아와 카프카스 지역에 위치한 국가로, 이 나라의 지리, 기후, 문화, 역사 등은 매우 다양하며 행사가 열리는 수도 바쿠는 아제르바이잔의 정치적, 경제적 중심지

아제르바이잔 위치	아제르바이잔 전도	개요
		- 국가: 아제르바이잔(Azerbaijan)
		- 수도: 바쿠
		- 언어: 아제르바이잔어
		- 화폐: 아제르바이잔 마나트(AZN)
		- 면적: 866만ha
		- 인구: 1,033만 명
		- 종교: 이슬람교 96%

- 바쿠는 카스피해 연안에 위치한 아제르바이잔의 수도이자 가장 큰 도시로 세계적인 석유 생산지. 바쿠는 독특한 현대 건축과 전통적인 이슬람 건축이 잘 결합된 도시로 대표적인 건축물로는 플레임 타워(Flame Towers)와 같은 고층 빌딩들과 옛 바쿠의 성벽(Icherisheher)이 조화를 이루고 있으며, 세계문화유산으로 등재된 구시가지

○ **지리적 특징**

- 아제르바이잔은 카프카스 지역과 이란, 터키와 가까운 위치에 있으며, 동쪽으로는 카스피해와 접하고 있어 다양한 지형과 생태계를 자랑. 아제르바이잔의 북부는 산악지대이고, 남부는 평야와 농업지역이며, 카스피해와의 인접성 덕분에 바쿠는 해안도시로서 중요한 역할

○ **문화적 특징**

- 아제르바이잔은 튀르크계 민족을 주로 이루고 있으며, 이슬람교가 주요 종교이나 아제르바이잔은 비교적 종교적으로 자유로운 분위기로 이슬람 문화와 서구 문화가 혼합된 독특한 문화. 음악, 문학, 무용은 아제르바이잔 문화에서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며, 특히 바쿠는 현대적인 요소와 전통적인 건축물이 공존하는 도시

○ **역사적 특징**

- 아제르바이잔은 고대에는 페르시아 제국과 그리스, 로마 제국과의 관계가 깊었고, 후에는 오스만 제국과 러시아 제국의 지배를 받았으며, 20세기 초 아제르바이잔은 소련에 편입되었고, 1991년 소련 붕괴 후 독립. 아제르바이잔의 역사는 복잡한 민족적 갈등과 외세의 영향을 받으며 발전

○ **경제적 특징**

- 아제르바이잔은 세계적인 석유 생산국 중 하나로, 셰키-아르자크-사반지 등의 주요 유전이 위치해 있으며, 카스피해와 인접해 석유와 천연가스의 생산 및 수출을 통해 경제 성장
- 석유 산업 외에도 농업도 경제에서 중요한 비중을 차지하고 있으며, 주요 농산물로는 솜 (면화), 과일, 채소, 곡물 등
- 아제르바이잔은 경제적으로 유럽과 아시아를 연결하는 중요한 교차로에 위치해 있으며, 유럽연합, 중국, 러시아와의 경제 관계가 중요하나 국제적으로 지정학적 불안정성, 영토 분쟁 (특히 나고르노-카라바흐 지역), 그리고 자원 의존적 경제의 한계로 인해 경제적으로 도전적인 상황

4. 여행자 인적 사항

소속	성명	직급	성별
제주연구원 제주탄소중립지원센터	강진영	센터장	남
	이준원	전문연구위원	남
	김경도	전문연구원	남
	오예슬	연구사업운영원	여

5. 주요 일정

월 일 (요일)	출발지	도착지	방문 기관	업무수행내용
11/11 (월)	제주	김포	이동	제주(19:30)-김포(20:40) 이동 (대한항공)
11/12 (화)	인천	이스탄불	이동	인천(00:10)-이스탄불(06:15) 이동 (터키항공)
11/12 (화)	이스탄불	바쿠	이동	이스탄불(08:55)-바쿠(12:50) 이동 (터키항공)
11/13 (수)	-	-	COP29	현지 사전 점검(행사장 답사, 동선 파악 등)
11/14 (목)	-	-	COP29	언더2연합 총회 참석
11/15 (금)	-	-	COP29	각국 홍보관 시찰(탄소중립 선진사례 등 시찰)
11/16 (토)	-	-	COP29	한국홍보관 세션(발표) 제주탄소중립지원센터 홍보(홍보물, 리플렛 이용)
11/17 (일)	-	-	COP29	각국 홍보관 시찰(탄소중립 선진사례 등 시찰)
11/17 (일)	바쿠	이스탄불	이동	바쿠(21:55)-이스탄불(00:20) 이동 (터키항공)
11/18 (월)	이스탄불	인천	이동	이스탄불(02:20)-인천(18:20) 이동 (터키항공)
11/18 (월)	김포	제주	이동	김포(21:05)-제주(22:15) 이동 (대한항공)

6. 유엔기후변화 당사국총회(UNFCCC COP)

- 유엔기후변화 당사국총회(United Nations Climate Change Conference, UNFCCC COP)는 기후 변화와 관련된 국제적인 협약과 대응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매년 열리는 회의로서 COP는 Conference of the Parties의 약자이며, UNFCCC(United Nations Framework Convention on Climate Change)의 당사국들이 모여 기후 변화 문제에 대한 협력과 해결 방안을 논의
- COP 회의는 세계적으로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주요한 정책적, 정치적 플랫폼으로, 국가들이 서로 협력하고 기후 목표를 설정하는 중요한 협의의 장으로 각 회의에서 제시된 약속들은 기후 변화 대응을 위한 글로벌 동향을 이끌어가며, 실제로 각국의 기후 정책에 큰 영향

○ 주요 목적

- 기후변화 대응: 각국 정부들이 기후변화 완화, 적응, 재정적 지원 등을 위한 국제적인 협력 방안 모색
- 국제적인 협정 및 규범 설정: 파리 협정(2015) 같은 국제 협정들이 COP 회의에서 채택되며, 이는 각국의 온실가스 배출 목표와 기후 변화 완화 노력 명시
- 이행과 점검: 과거 회의에서 채택된 협정들의 이행 현황을 점검하고, 부족한 부분을 보완하며, 새로운 목표를 설정합니다.

○ 주요 회의 내용

- 탄소 배출 감소 목표: 각국은 온실가스 배출 저감 목표를 설정하고, 이를 달성하기 위한 방안 논의
- 기후 재정: 개발도상국이 기후변화에 적응할 수 있도록 선진국의 재정적 지원에 대한 논의
- 기후 적응 전략: 기후 변화로 인한 지역의 적응 방안 모색
- 기술과 혁신: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새로운 기술과 혁신적인 접근법에 대한 논의

7. 제29차 유엔기후변화 당사국총회 (COP29)

○ 기간 및 장소: 2024년 11월 11일(월) ~ 11월 22일(금) / 아제르바이잔 바쿠

○ 슬로건: 녹색 세상을 위한 연대 (In Solidarity for a Green World)

○ 참가 규모: 198개 협약 당사국 정부 대표 및 국제기구, 민간, 언론 등 약 4만 명

○ 주요 쟁점:

- 한국 시각으로 11일 오후 3시 아제르바이잔 수도 바쿠에서 제29차 유엔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 (COP29)가 개막했으며, 총회는 22일까지 진행될 예정이었으나, 신규 기후재원 확보에 관한 선진국과 개발도상국의 연장 협의 끝에 24일 폐막
- COP29의 참석인원 수는 4만 여명. 지난해 아랍에미리트(UAE) 두바이에서 열린 COP28의 9만 여명 대비 절반에 그쳤으며,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와 주요 20개국(G20) 정상회의가 연달아 열려 주요 정상 대다수가 COP29에 불참
- COP29에서는 파리협정 제6조 '국제탄소시장'에 관한 세부지침 합의가 채택되어 파리협정 제6.4조(메커니즘)와 관련한 세부지침이 통과. 2015년 파리협정이 타결된 지 거의 10년만
- 올해 COP29에서는 2025년 이후의 '신규 기후재원 조성 목표(NCQC)' 설정을 둘러싼 선진국과 개발도상국 간의 갈등이 첨예하게 대립. COP29 결과, 모든 국가는 2035년까지 신규 기후재원 조성 목표를 연간 1조 3,000억 달러(약 1,825조 원)까지 확대하기 위해 노력한다고 합의했으며, 이중 최소 연간 3,000억 달러는 선진국 정부의 주도로 마련. 다만, 개도국과 태평양 도서국을 중심으로는 선진국들이 기여하기로 한 액수가 턱없이 적다는 반발

1. 국제기구 세션 참관 및 협력 강화

○ 언더2연합 총회 참석 및 간담회

- 언더2연합 총회에서 네허마트 카우르 이사는 탄소중립을 위한 제주의 리더십을 지지하였고, 아울러 내년 제주에서 개최하는 세계환경의 날 기념식에 참여 의향 표명
- 탄소중립 실현을 위한 지방정부간 협력 및 국제연대 강화



언더2총회 참석



간담회 이후 기념 촬영

○ 이클레이(ICLEI) 세션 참관 이나미 쿠말 부총재 간담회

- 아시아에서 가장 선도적인 탄소중립 계획과 지속가능발전전략을 추진하고 있음을 호평하고, 제주의 탄소중립 정책과 계획을 국제사회와 공유할 계획
- 지속가능성을 위한 세계지방정부(ICLEI)의 이나미 쿠말 부총재는 제주의 탄소중립계획과 지속가능 발전 전략에 대하여 아시아에서 가장 선도적인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면서, 제주의 정책을 국제사회에 공유할 수 있는 기회를 마련하겠다고 제안

2. 한국홍보관 제주세션 및 기술전시

○ ‘지방정부의 기후위기 완화를 위한 탄소중립 실천 방안 모색’을 주제로 하여 2035 탄소중립 제주비전과 탄소중립 선도도시 제주 계획 발표(강진영 센터장)

- 김인환 서울대학교 환경대학원 교수는 기후테크를 통한 제주의 녹색산업 진흥 전략을 제안하였고, 김주진 기후솔루션 대표는 탄소중립을 위해서는 내연발전 분야의 전환이 필요하며, 그린수소는 다양한 분야의 적용이 가능하나 수요처 확보 등이 필요하다고 제언
- 하스나 모우두드 자연환경보전연맹(IUCN) 동·남아시아 위원은 제주의 우수한 자연환경을 극찬하였으며, 칼 아리베브 나미비아 기후투자재단(EFI) 대표는 제주와의 에너지분야 파트너십에 많은 관심



한국홍보관 제주세션 강진영 센터장 발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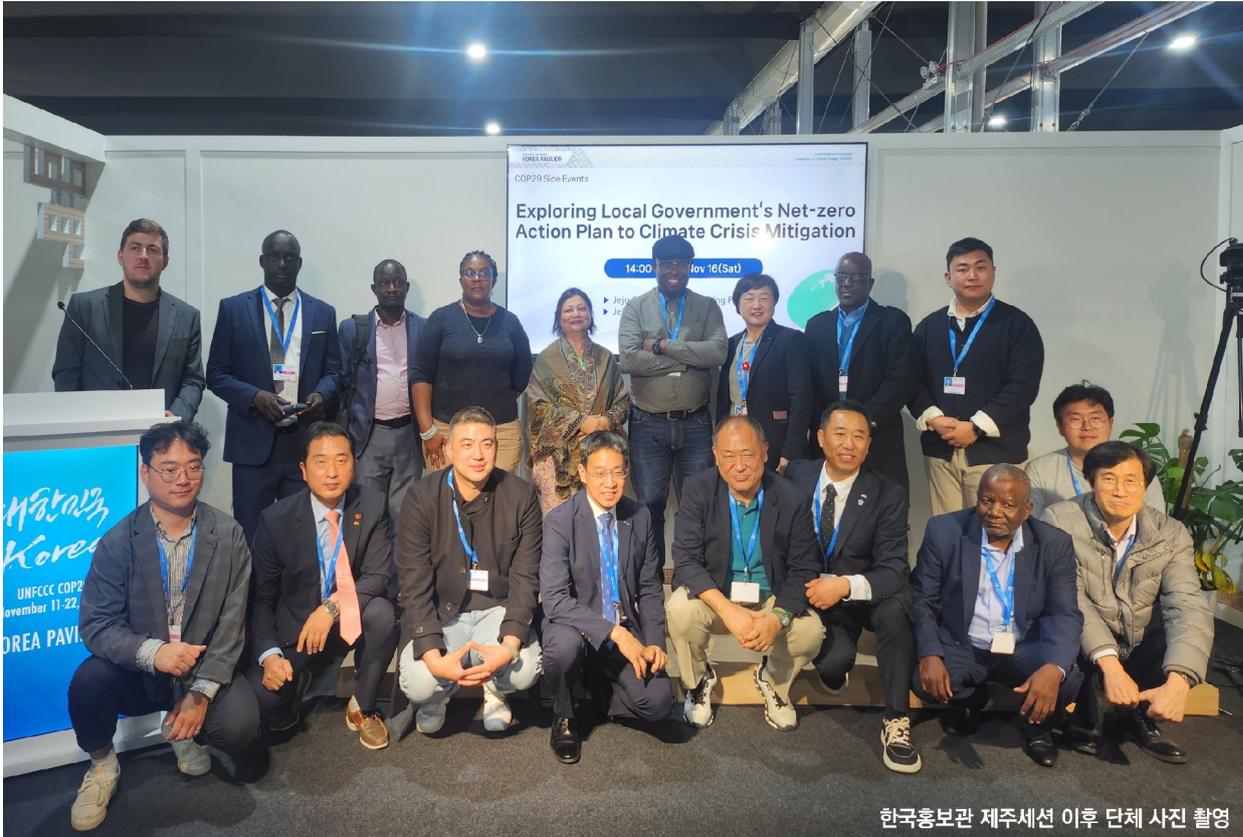
한국홍보관 제주세션 발표 후 토론



갈 아리베브 나미비아 기후투자재단(EFI) 대표 발언



하스나 모우두드 자연환경보전연맹(IUCN) 동-남아시아 위원 발언



한국홍보관 제주세션 이후 단체 사진 촬영

4. 각 국가 홍보관 탐방

○ 중국 파빌리온

- **(중국의 저탄소 발전 전략)** 중국은 기후 변화 대응을 국가 전략으로 설정하고, 저탄소 개발을 통해 생태 문명 구축에 기여하고자 했습니다. 행사에서는 에너지 전환, 재생 가능 에너지 활용, 탄소 포집 및 저장(CCUS) 기술 등
- **(국제 협력을 통한 생태 문명 구축)** 중국은 국제 사회와 협력하여 다자주의를 실천하고, 기후 거버넌스에서 공정성과 정의를 강조하며 시장 규칙 및 자유 무역을 존중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특히, 개발도상국의 기후 적응 능력을 강화하기 위한 재정 지원 강조
- **(청소년 및 민간 참여)** 청소년 및 민간 부문이 탈탄소화와 환경 보존 노력에 적극 참여할 것을 독려했습니다. 예를 들어, 중국의 청소년 환경 단체가 기후 행동 사례를 발표
- **(기술 전시 및 발표)** 중국의 최신 기술과 프로젝트가 소개되었으며, 특히 에너지 효율화 기술, 스마트 에너지 관리 시스템, 그리고 지속 가능한 도시 개발 모델이 강조되었습니다

○ 일본 파빌리온

- **(기술 및 정책 소개)** 일본은 재생 가능 에너지, 에너지 절약, 자원 순환, 생물 다양성 보전, 오염 방지 등에서 일본 기술과 정책을 선보였습니다. 이를 통해 전 세계적으로 탈탄소 사회 구축과 지속 가능성 실현을 지원
- **(일본 비정부행위자의 역할)** 일본기후이니셔티브(JCI)는 비정부행위자(기업, 지방정부, 대학, 청년 단체)의 기후 행동을 강조하며, 탈탄소화를 위한 일본 내외의 협력을 논의했습니다. 히타치와 아사히 그룹 등 일본 기업들이 지속 가능성 전략을 발표했으며, 국제기구와의 협력 방안 논의
- **(청소년과 지역사회의 참여)** 일본 파빌리온은 청소년, 지역사회, 기업 등이 협력하여 국가 탈탄소화 전략을 강화하고 정책 변화를 이끄는 사례를 공유했습니다. 특히, 지역 정부와 시민 단체의 협력으로 기후 목표 달성을 위한 다층적 접근을 강조
- **(금융 및 기후 행동)** 금융 시장이 기후 행동과 탄소중립 목표에 어떻게 기여할 수 있는지를 논의했습니다. 새로운 금융 도구, 기후 공시 강화, 그리고 지속 가능한 경제로의 전환을 촉진하기 위한 전략 논의

○ 영국 파빌리온

1) 에너지 전환과 청정 에너지 성장

- 해상풍력 및 청정 에너지 프로젝트: 영국은 해상풍력 발전과 청정 전력 인프라 개발을 통해 화석 연료 의존도를 줄이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East Anglia Two 해상풍력 프로젝트는 약 100만 가구에 전력을 공급할 수 있는 규모로, 일자리 창출과 탄소 배출 감소에 기여
- 첨단 원자력 기술: 철강, 화학 등 에너지 집약 산업의 탈탄소화를 지원하는 원자력 기술의 잠재력을 논의하며, 데이터 센터 등 신규 에너지 수요를 충족하기 위한 방안 제시

2) 기후 금융 및 무역

- 민간 투자 활성화: 개발도상국의 기후 행동을 지원하기 위해 공공 및 민간 부문의 협력을 강조하며, 공적 자금과 시장 메커니즘을 통해 기후 금융 격차를 줄이는 방안 논의
- 런던 증권거래소의 자본 시장 메커니즘: 글로벌 청정 에너지 전환을 위해 국제 자본 유치를 촉진하는 새로운 금융 모델 도입

3) 혁신과 데이터 활용

- AI 및 데이터 센터 에너지 관리: AI와 데이터 센터의 증가하는 에너지 수요를 지속 가능하게 관리하기 위한 기술적 접근법과 규제 개선 방안이 논의

4) 청소년 참여와 교육

- 기후 리더 육성: 영국은 청소년 협상가 아카데미를 지원하고, 기후 정책과 협상의 중요성을 학습할 수 있는 시뮬레이션 이벤트를 통해 차세대 리더 육성

○ 브라질 파빌리온

1) 브라질의 새로운 기후 공약 (NDCs)

- 브라질은 2035년까지 2005년 대비 온실가스 배출량을 59% 감축하겠다는 목표를 발표했으며, 이는 10억 5천만 톤의 CO₂eq 감축을 의미하며, 2050년까지 탄소 중립을 실현하려는 장기 목표와 연결
- 이러한 목표는 생태 전환 계획(PTE)과 기후 계획(Climate Plan)을 기반으로 하며, 감축과 적응을 위한 총 23개의 부문별 계획을 포함

2) 생태 전환과 지속 가능한 발전

- 브라질 파빌리온은 바이오경제, 지속 가능한 농업 및 식량 시스템, 에너지 전환, 순환 경제와 같은 주제를 중심으로 토론과 전시 진행
- 특히, 열대우림 보호 및 복원을 위한 "열대림 영원히(Tropical Forests Forever Fund)"와 같은 프로젝트를 소개하며, 개발도상국의 열대우림 보전에 대한 재정적 지원 모델 제안

3) 탄소 시장 메커니즘

- COP29에서는 파리협정 제6조(Article 6)에 따른 국제 탄소 시장 규칙을 최종 확정
- 이는 브라질이 자국 탄소 시장을 국제적으로 연계하는 데 유리한 환경을 제공하며, 감축 목표 달성과 탄소 크레딧 품질 검증 강화

4) 국제 협력과 다자주의

- 브라질은 개발도상국을 위한 기후 금융의 명확한 정의와 공정한 재정 지원을 강조하며, 다자주의 복원을 위한 선도적 역할을 수행
- 또한, COP30의 개최국으로서 1.5°C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글로벌 협력을 촉진

○ 탄소중립 목표 달성을 위한 글로벌 동향 분석

- COP29에서 논의된 주요 의제는 제주도의 탄소중립 정책에 실질적인 영향을 줄 시사점을 제공. 특히, 파리협정 제6조를 기반으로 한 탄소시장 강화와 국제협력 확대가 중요한 안건으로 다룸
- 이번 논의를 통해 글로벌 탄소시장 운영 체계와 관련한 최신 정보를 파악했으며, 이는 제주도 배출권거래제 외부사업의 투명성 및 효과성을 개선하는 데 유용한 자료로 활용
- 탄소중립을 위한 국제 표준화 경향이 명확화. 특히, 배출량 산정 및 인증 절차의 세부 기준이 강화됨에 따라 제주는 이를 자치도 차원의 정책으로 반영해 신뢰도 높은 배출량 보고 체계 확립 필요

○ 기후 금융 확대 및 재정적 실행력 강화 방안

- COP29에서 기후 금융과 민간 자본 유치가 탄소중립 이행의 핵심 수단으로 논의. 특히, 기후변화로 인한 피해가 심각한 개발도상국 지원을 위해 공공 및 민간 자금의 조화로운 활용이 강조
- 이러한 논의는 제주도 내 기후금융 적용 가능성을 시사하며, 제주가 기후 관련 프로젝트를 수행하는 데 필요한 재정적 기반을 마련하는 데 유리한 기회 제공
- 또한, 이번 논의에서 소개된 민간 금융 활용 사례들은 제주도 내 재생에너지 확산 및 스마트그리드 구축과 같은 프로젝트의 실행력을 강화하는 데 참고
- 특히, 제주가 가진 재생에너지 자원을 활용해 민간 투자자를 유치할 경우, 제주도는 글로벌 탄소중립 시장에서 선도적 역할

○ 적응 및 회복력 강화에 대한 새로운 통찰

- COP29의 적응 세션에서 공유된 사례들은 기후 회복력 강화를 위한 제주도의 정책 설계에 중요한 방향성을 제시했습니다. 특히, 도시 회복력과 적응 전략의 연계성을 강조한 논의는 기후위기에 직면한 지역 사회의 지속 가능성을 높이는 데 도움이 될 것입니다.
- 제주도는 해양 및 섬 지역의 특성을 고려하여 기후변화로 인한 자연재해 및 생태계 변화에 대비해야 합니다. 이번 회의에서 논의된 자연기반 해법(Nature-based Solutions)과 같은 접근법은 제주의 생태 보전과 탄소중립 목표 달성을 동시에 추진할 수 있는 실질적인 전략으로 채택될 수 있습니다.

○ 제주의 국제적 위상 강화

- COP29에서 제주도의 탄소중립 기본계획과 정책 사례가 성공적으로 소개됨으로써, 국제사회에서 제주의 위상이 크게 향상
- 특히, 언더2연합 정회원으로서의 활동과 제주 세션 운영은 제주의 글로벌 리더십을 강화하는 계기가 되었으며, 이와 함께, 다른 지방정부 및 국제기구와의 네트워크를 확장함으로써 제주도는 국제적 협력을 통해 탄소중립 정책의 실행력을 더욱 높일 수 있는 기반을 마련
- 이러한 네트워크는 향후 공동 프로젝트, 기술 교류 및 재정 지원 유치와 같은 다양한 형태로 발전할 가능성

IV 첨부자료

1. 국제탄소시장 출범의 시사점

“정부는 국제감축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 그간 27개국의 우선 협력 대상국과 전략적인 실행 체계를 준비해 왔다. COP29에서 탄소시장에 대한 세부 이행 규칙이 정해진 만큼 관련 사업들이 탄력을 받아 전지구적 온실가스 감축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

김완섭 환경부 장관

1. 국제 탄소시장의 의미와 전망

- 온실가스 감축목표(NDC) 달성을 위한 체계적 협력 기반 마련
 - COP29에서 파리협정 제6조(6.2 및 6.4 조항)의 세부 이행 규칙이 타결됨에 따라 국가 간 온실가스 감축 실적 거래가 가능해졌으며, 이로써 한국은 2030년까지 NDC의 12.8%에 해당하는 약 3,750만 톤의 온실가스를 국제감축으로 달성할 수 있는 기반 확보
- 탄소크레딧 품질 향상
 - 기존 교토의정서 기반의 청정개발체제(CDM)를 파리협정 체제로 전환하는 '파리협정 크레딧 메커니즘(PACM)'이 도입됨으로써, 탄소크레딧의 질적 수준과 역할이 강화될 전망이며 국제 탄소시장의 탄소 제거 기준이 명확해지면서 환경적으로 건전하고 신뢰할 수 있는 거래 가능

2. 한국의 전략적 대응 필요성

- 민간 탄소시장(VCM)의 통합적 활용
 - 새로운 국제탄소시장 체계 내에서 민간 탄소시장(VCM)에서 발행된 탄소크레딧이 국가 감축 목표(NDC) 달성에 기여할 수 있는 길이 열렸으며, 한국은 민간 부문과의 협력을 통해 효율적인 감축 프로젝트를 발굴하고 탄소시장 참여 확대 필요
- 이중계산 방지 및 투명성 강화
 - COP29에서 가장 중요한 성과로 평가된 이중계산 방지 지침의 합의는 거래의 신뢰성을 확보하고 국제 탄소시장을 체계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토대를 제공하며, 한국은 이를 국내 제도에 적용해 국제 기준에 부합하는 투명한 거래 보장

3. 경제적 기회와 도전 과제

- 새로운 국제시장 진출 기회
 - 국제탄소시장은 2025년 본격 출범하며, 이를 통해 한국 기업들은 탄소 배출 감축 기술 및 프로젝트를 국제적으로 확대할 수 있는 기회를 갖게 되며, 특히, 탄소거래와 관련된 기술, 관리 노하우, 인증 분야에서 한국이 선도적 역할

○ 기술 및 제도적 정비 필요

- '파리협정 크레딧 메커니즘(PACM)'과 관련된 새로운 방법론 및 탄소 제거 기준이 도입되면서 국내 감축 사업의 평가 체계와 방법론을 국제 기준에 맞추는 작업이 필요하며, 국제시장 내 경쟁력을 유지하기 위해 기술 개발과 정책적 지원이 뒷받침 필요

4. 국제적 책임과 협력 확대

○ 글로벌 감축 리더십 강화

- COP29에서 한국은 27개국과의 우선 협력체계를 기반으로 국제감축 사업을 적극 추진할 계획을 밝혔으며, 이러한 협력은 한국이 전지구적 감축 노력에 기여하며 국제적 책임을 다할 수 있는 중요한 기회

○ 개발도상국과의 상생 모델 구축

- 한국은 국제감축 사업을 통해 개발도상국의 기술 이전과 감축 지원에 나섬으로써 상생 협력 모델을 구축하고 국제사회의 신뢰를 확보